

〈심양왕환일기〉의 저자 고증

신해진*

— <차 례> —

1. 들어가며
2. 박난영 저자설의 실상 및 비판적 검토
 - 1) 박난영 저자설의 실상
 - 2) 그 비판적 검토
3. <심양왕환일기> 저자로서의 위정철
 - 1) 저자 입증을 위한 새로운 근거 자료 소개
 - 2) 저자로서의 위정철에 대한 입증
 - 3) 위정철(魏廷詰)은 누구인가
4. 나가며

〈국문초록〉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후금과 조선의 외교적 교섭에 관한 중요사료라 할 수 있는 <심양왕환일기(瀋陽往還日記)>는 1631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장계(狀啓) 형식으로 거의 매일 기록한 사행일기(使行日記)인데, 후금의 정세뿐만 아니라 그 명나라 및 몽골과의 관계에 관한 낱새까지 기사가 상세하다. 이 일기는 위순량(魏順良)의 소장본을 1927년 베껴 옮긴 등초본이다.

그간 이 문헌의 저자는 일기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빈약한 근거를 통해 1631년 춘신사(春信使) 박난영(朴蘭英)으로 추정되어 왔다. 이러한 추정 에 대해, 이 글은 1631년의 춘신사로서 박난영, 선유사(宣諭使)로서 박난영 등으로 행적을 나누어 각종 문헌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조선사편수회가 1935년에 편찬한 『조선사료집진』 및 『조선사료집진 해설』의 자료에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입증의 단서를 마련하고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위정철(魏廷詰)이 저자임을 입증하였으며, 그 인물의 간략한 일대기도 아울러 정리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문화가치 창출 인재양성 사업단장

하였다. 위정철은 위손량과 10대의 방조(傍祖)와 방손(傍孫) 사이였다.

주제어 <심양왕환일기>, 박난영, 위정철, 위순량, 『조선사료집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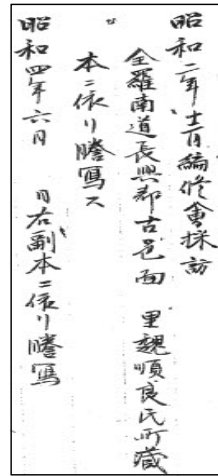
1. 들어가며

17세기 초엽의 만주에서는 명나라와 후금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지배권이 재편되기 시작한다. 오랑캐라고 폄하했던 후금이 1619년 사르후(薩爾滸) 전투에서 승리하여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1621년에 이르러서는 요하(遼河)의 동쪽지역을 거의 정복할 정도로 위협적인 세력으로 성장한다. 이 여파로 요동(遼東)을 수복하려는 모문룡(毛文龍) 휘하의 명나라 군대가 평안북도 철산(鐵山) 앞의 가도(椴島)에 주둔하기도 한다. 명나라를 파죽지세로 공략하기 시작하던 누르하치가 1626년 영원성(寧遠城)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아들 홍타이지(皇太極)가 군주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는 본격적으로 명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배후를 위협하는 조선을 1627년에 먼저 침략하여 ‘형제지국(兄弟之國)’의 약속을 맺고 물러갔다. 이 정묘호란 이후로 양국은 압록강 국경지대에서의 개시(開市) 및 포로 쇄환, 가도의 명군(明軍)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신들이 드나들었다. 이때부터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의 사신으로서 심양을 다녀왔던 사행기록물들이 드물게 남아 있는데¹⁾, <심양왕환일기>도 그 중의 하나이다.

<심양왕환일기(瀋陽往還日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청구기호:奎15682)이다. 표제는 ‘심양일기’로 되어

1) 신해진 역주의 『심양사행일기』(보고사, 2013)가 그 사례의 하나인데, 선약해(宣若海)가 위문사로서 1630년 4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심양을 다녀오며 적은 일기이다.

있고, 권두서명은 ‘심양왕환일기’로 되어 있다. 1631년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넌 때부터 의주로 돌아온 4월 30일까지의 일을 거의 매일 기록한 장계(狀啓) 형식의 사행일기로 1책 38장본이다. 이 필사본은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에 의해 활자화되어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02)』의 109쪽부터 133쪽
에까지 <심양왕환일기>로 수록되었다.²⁾ 또 이 필사본은 2008년 『연행록속집』 권106의 328쪽부터 405쪽에까지 <심양일기>로 영인되었다.³⁾ 결국, 현전 <심양왕환일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의 소장 필사본이 유일본인 셈이다.



〈그림 1〉

〈그림1〉은 유일본 <심양왕환일기>의 맨 끝장에 첨부된 기록이다. 즉, “소화(昭和) 2년(1927) 12월 조선사편수회에서 전라남도 장흥군 고읍면(지금의 관산면)을 방문하여 위순량씨의 소장본을 베껴 옮겼고, 소화 4년(1929) 6월에 그 베껴 옮긴 것을 바탕으로 다시 베껴 옮겼다.(昭和二年十二月, 編輯會採訪全羅南道長興郡古邑面里, 魏順良氏所藏本=依リ謄寫, 昭和四年六月日, 右副本=依リ謄寫.)”는 일종의 후기이다. 현전하는 <심양왕환일기>의 필사본은 원본이 아니라 위순량(魏順良)의 소장본을 베껴 옮긴 등초본(謄抄本)임을 알려주는 글이다. 이처럼 그 최초의 소장자는 밝혀졌지만,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는 필사본 어디에도 밝혀져

2) 고구려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 바뀌면서 2007년에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02)』을 재간행하였는데, 그 책의 111~135쪽에 걸쳐 또한 수록되어 있다.

3) 임기중 편, 『연행록속집』 106(상서원, 2008)에는 <심양왕환일기>라는 제명으로 409~483쪽에 걸쳐 영인되어 있어 마치 다른 이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데, 몇 쪽이 착종되거나 산절되어 있을 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과 동일하며 글씨체까지 같다.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순량은 학계에서 저자로 추정하고 있는 박난영(朴蘭英, 1575~1636)이 쓴 <심양왕환일기>를 어떤 연유로 소장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위순량(1902~1979)은 장흥위씨 32세손으로 고문헌 수집가가 아니라고 한다.⁴⁾ 그러한 그가 다른 집안의 고문헌을 고이 간직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현재 학계에서 저자에 대한 추정을 잘못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2. 박난영 저자설의 실상 및 비판적 검토

현전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로서 박난영에 대한 추정은 본격적인 논의의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들이 이제는 저자로서의 확정성을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어서 시급히 바로잡아야 될 문제적인 것인바, 그 실상을 먼저 살펴본다.

1) 박난영 저자설의 실상

① 1631년(仁祖 9) 朴蘭英(?~1636)이 瀋陽에 春信使로 다녀온 기록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앞에 <歲在辛未崇禎四年也臣去三月十九日申時量渡江>이라는 年記가 있고 《朝鮮王朝實錄》에는 1631년 2월에 胡差 仲男이 開市를 요구하여 그 春信使로 朴蘭英을 보냈다고

4) 위순량은 1남3녀를 두었는데 외아들이 후손을 두지 않은 채 6.25때 전사하여 그의 직계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의 장조카 위재환(1928~현재)씨와 연락이 닿아 문의한 결과, 숙부는 고문헌을 수집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심양왕환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仁祖實錄 卷24, 仁祖 9년 2월조)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두 기록이 시기와 春信使의 이름이 같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시대적 史實이 같으므로 저자가 朴蘭英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朴蘭英은 武臣으로 沔川郡守 등을 거쳐 1619년(光海 11) 姜弘立을 따라 後金 정벌에 참여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다. 1627년(仁祖 5) 풀려나와서 주로 後金에 대한 외교를 맡아 回答官·宣諭使·秋信使·春信使 등을 맡아 수차 왕래하였고, 1636년 丙子胡亂 때에 假王子를 데리고 龍骨大 등과 和議의 회담을 하다가 탄로가 나서 끝내 죽임을 당하였다.⁵⁾

② 1631년(仁祖 9) 春信使로 後金의 瀋陽에 다녀온 朴蘭英(?-1636)이 쓴 狀啓 형식의 使行日記이다. 1冊 38張의 筆寫本으로, 1929년에 長興의 魏順良 所藏本을 轉寫한 後寫本이다. 박난영은 姜弘立을 따라 後金 공격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었던 武官으로, 풀려난 이후에는 주로 後金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本書에 기록된 1631년의 使行은 後金の 開市 요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는데, 박난영은 後金の 수도인 瀋陽에 가서 開市 문제 이외에도 정묘호란 때 잡혀온 포로의 刷還 문제, 椴島의 明軍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③ 1631년(仁祖 9), 春信使 朴蘭英(?-1636)이 瀋陽을 다녀온 사실을 기록한 일기인데, 표제는 ‘瀋陽日記’이다. 이 책의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본문의 처음에 “歲在辛未, 崇禎四年也. 臣去三月十九日申時量, 渡江”이라 하였고, ‘胡差 仲男이 汗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용만에 開市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춘신사 박난영은 이미 瀋陽으로 떠난 뒤였다.’(권24, 인조 9년 2월 병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박난영으로 추정된다. 박난영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沔川郡守, 中軍 등을 지냈고, 1619년(광해군 11)에 姜弘立 도원수를 따라 後金 정벌에 참여하였다가 포로가 되었다. 박난영은

5) 해제의 글을 있는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학회의 논문 작성 요령에 벗어나 있음을 밝히며, 이하 동일하다.

1627년(인조 5)에 포로에서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이후 조선과 後金과의 외교 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여 回答官·宣諭使·秋信使·春信使 등의 자격으로 심양을 왕래하며 후금을 회유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박난영은 假王子를 데리고 후금의 장수 龍骨大와 和議 회담을 진행하다가, 왕자가 가짜임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1625년 후금이 심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이곳을 방문한 조선 최초의 사절은 1630년에 파견된 宗室 原昌君이었다. 박난영은 1631년에 조선 사절로는 2차로 심양을 다녀왔는데, 이 무렵 胡差 龍骨大는 龍灣의 開市를 요구하거나 椶島를 차지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胡人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조선을 위협하고 했다. 박난영은 이에 응대할 임무를 맡아 심양으로 파견되었다.⁶⁾

④ 박난영(朴蘭英, ?~1636)은 무신으로, 선조 때 면천군수(沔川郡守)·중군(中軍) 등을 거쳐, 1619년(광해군 11)에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후금(後金) 정벌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때 석방된 뒤, 회답관(回答官)·선위사(宣慰使)·선유사(宣諭使)·추신사(秋信使)·춘신사(春信使) 등으로 여러 차례 심양(瀋陽)을 내왕하며 후금을 회유하는 데 힘썼다.

『심양일기』는 1630년(인조 8)에 심양(瀋陽)에 춘신사로 다녀와서, 그 이듬해인 1631년에 기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규장각 측의 해제에서 이미 박난영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 근거는 책의 서두에 “신미숭정사년(辛未崇禎四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신이 지난 3월 19일 신시 무렵에 강을 건너(臣去三月十九日申時量渡江)”라고 시작되는 부분의 년기(年記)와 기록 내용이, 『朝鮮王朝實錄』 1631년(인조 9) 2월조에 胡差(胡差) 중남(仲男)이 개시(開市)를 요구하여 그 춘신사(春信使)로 박난영을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록에 기록된 장계(狀啓)의 사실(史實)이 같은 것을 미루어 그런 추정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그

6) 고구려연구재단 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02)』, 고구려연구재단, 2004, 9~10쪽.

저자가 춘신사 박난영이라는 기존의 추정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⁷⁾

①과②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홈페이지에서 소개한 해제인데, ①은 1990년대 초반에 작성된 것의 일부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며, ②는 2000년 황재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의 일부이다. ③은 2004년 김문식에 의해 작성된 해제의 일부이고, ④는 2005년 이지양에 의해 작성된 해제의 일부이다. 위의 인용된 자료들을 살펴해보자면, ①은 <심양왕환일기>가 '1631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쓴 사행일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조선왕조실록의 1631년 2월 2일조 춘신사 박난영의 기사를 찾아 꿰맞추어 추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②는 이러한 ①의 추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그 추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정적으로 저자를 박난영으로 전제하였다. 박난영이 저자라는 것에 대해 ③은 ①의 추정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도 그 출처조차 언급하지 않은 반면, ④는 ①의 추정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그 출처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추정에 공감하여 신뢰할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특히,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 박난영에 대해 저자로서의 확정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견해를 표출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이 1631년 2월 2일 이전 춘신사로서 이미 심양에 가 있던 박난영을, 심양으로 가기 위하여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되는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로 본 것은 <심양왕환일기>의 기록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추정이고 결론인 셈이다.

7) 한국문학연구소 연행록해제팀,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168~169쪽.

2) 그 비판적 검토

먼저, <심양왕환일기>의 박난영 저자설에 대한 오류를 짚어내기 위해서는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1631년 춘신사로서의 박난영 행적을 재구할 필요가 있다. 1631년 2월 2일 이전 심양에 가 있다고 지목된 춘신사 박난영은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1630년 12월 18일에 심양으로 출발하였고⁸⁾, 1631년 3월 4일에 들어왔다⁹⁾. 박난영이 들어오면서 가져온 칸(汗)의 편지에는 “예단(禮單)이 보잘것없어 받지 않은 뜻과 그들의 두 왕자가 산해관(山海關)에서 패전한 사유를 네 가지 죄목을 들어 말했고, 또 우리나라가 맹약을 배반하였다고 하면서 만일 몽골 군사 10여 만 명을 보내면 해도(海島) 밖의 육지라도 반드시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맨 끝에는 맹약을 굳게 지켜 화목하게 지내자는 뜻으로 권면하여, 다른 뜻은 없는 듯하였다.”고 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응천일록(凝川日錄)》에 기록되어 있다.¹⁰⁾ 그 가운데, 칸이 조선에서 보낸 예단을 돌려보낸 일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듣건대 금나라 칸이 예단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예단을 다시 보내어 나라의 체면을 손상케 해서는 안 되겠으나, 이적(夷狄)을 대하는 제왕의 도리로 보면 너그럽게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단 가운데 좋지 않은 물건은 바꿔 주고 적은 물건은 더해 주어 사체를 아는 자를 따로 임명하여 호차(胡差)와 함께 보내는 동시에 저들의 사정을 탐지해 오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고 비국(備局)이 아뢴 기사이

8) 《승정원일기》, 1630년 12월 18일. “春信使朴蘭英, 往審陽.”

9) 《승정원일기》, 1631년 3월 4일. “春信使朴蘭英, 入來.”

10) 朴鼎賢, 《凝川日錄》 5, 1631년 3월 4일. “春信使朴蘭英入來, 見其汗書, 言禮單微少不受之意, 及其二王子關內兵敗之由, 數其四罪, 且言本國渝盟, 若送蒙古十餘萬, 則海島外陸地, 必不得保云. 而未以固盟和義之意相勉, 似無他意矣.” 이 글의 번역은 《국역 대동야승》 12(민족문화추진회, 1973)의 261쪽을 참조하였다.

다.¹¹⁾ 따라서 춘신사로서의 박난영은 1630년 12월 18일 심양으로 출발하여 후금의 칸에게 예물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전달하지 못하고 1631년 3월 4일에 돌아왔으며¹²⁾, 그 다음날 비국에서는 다시 예물을 마련하고 사체를 아는 자로 따로 임명하여 후금의 사정을 탐지해 오려 했었던 것이 저간의 상황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춘신사로서 박난영은 3월 4일에 돌아왔는데, 그는 이틀 뒤인 3월 6일에 또다시 선유사(宣諭使)가 되어 자신을 뒤따라오다시피 한 호차 용골대(龍骨大)를 의주에서 영접하도록 명받았다¹³⁾ 3월 9일 출발하였고¹⁴⁾, 5월 19일에 들어왔다¹⁵⁾. 그 사이 박난영의 활동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료들을 살펴보면, 3월 22일에는 수비(守備) 모유증(毛有增)이 유씨(劉氏) 성을 가진 자와 항복한 달자(獐者)를 모두 죽이고 선

11) 《인조실록》, 1631년 3월 5일 2번째 기사. “金汗還我國禮單, 備局啓曰: ‘聞金汗不受禮單而還之. 若論以常道, 則不可復送, 以損國體, 而帝王待夷狄之道, 當務包荒. 今就禮單諸物中, 麤者改之, 少者益之, 另差解事之人, 偕差胡入送, 兼探事情而來, 似當.’ 答曰: ‘依啓. 且戶曹初不擇送, 以致辱國, 其失非細矣.’”

12) 한국문화연구소 연행록해제팀,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5, 169쪽.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630년(인조 8) 2월 27일조에 춘신사 박난영이 심양에 있으면서 치계했다는 조목과, 1631년(인조 9) 2월 2일조에 호차(胡差) 중남(仲男)이 개시(開市)를 요구하여 그 춘신사(春信使)로 박난영을 보냈다고 기재된 조목을 보면, 실제 사행(使行) 기간은 『심양일기(瀋陽日記)』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심양일기(瀋陽日記)』에는 ‘신미승정사년(辛未崇禎四年: 1631년, 인조 9) 3월 19일에서 4월 30일까지 약 40일 간만 기록되어 있다.’는 기록은 철저한 고증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13) 《인조실록》, 1631년 3월 6일 3번째 기사. “以朴蘭英爲宣諭使, 迎接胡差龍骨大于義州.”

14) 《승정원일기》, 1631년 3월 9일. “宣諭使朴蘭英, 以龍骨大等商胡接諭事出去.”

15) 《승정원일기》, 1631년 5월 19일. “선유사 박난영이 들어왔다. 일찍이 개시 때에 청포값을 힘껏 다투지 못했다는 이유로 돌아온 후에 나국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어제 비국이 올린 계사로 인해 나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宣諭使朴蘭英入來. 曾以開市, 靑布價不爲力爭, 有還來後拿靱之命, 而昨因備局啓辭, 命勿爲拿靱.)

천(宣川)으로 나와서 장차 북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서목(書目)을 올렸으며¹⁶⁾, 3월 27일에는 용골대가 가도(假島)의 변으로 인해 군사를 이끌고 와 구연성(九連城)에 주둔하자 의주 부윤 신경진, 숙천 부사 맹효남과 더불어 그곳을 찾아갔으며¹⁷⁾, 4월 13일에는 용골대가 말을 매입하고자 한 일에 대해서 치계(馳啓)하였으며¹⁸⁾, 4월 15일에는 개시(開市)에 쓸 물화(物貨)의 값을 정할 적에 급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년의 규례를 따랐으므로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한다는 서목을 올렸다¹⁹⁾. 요컨대, <심양왕환일기>가 쓰인 3월 19일부터 4월 30일 사이까지 박난영은 춘신사로서 심양에 간 것이 아니라 선유사의 자격으로 의주에서 용골대와 개시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로써, 박난영은 <심양왕환일기>의 저자가 될 수 없음이 확인해진다.

다음으로, 저자가 박난영이라고 하면 <심양왕환일기>의 문맥이 통하지 않거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을 살필 필요가 있다. <심양왕환일기>의 3월 21일 일기를 보건대, 조선의 사신이 심양으로 가는 도중에 용골대를 우연히 만나는 대목에서, 만약 조선의 사신이 박난영이라면 이전에 이미 서로 면식이 있었던 터라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처럼 깃듯한 예의를 갖추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든다.²⁰⁾ 조선의

16) 《승정원일기》, 1631년 3월 22일.

17) 《인조실록》, 1631년 3월 27일 2번째 기사.

18) 《인조실록》, 1631년 4월 13일 1번째 기사.

19) 《승정원일기》, 1631년 4월 15일.

20) <심양왕환일기>. “사신의 말은 비록 예에서 나왔을 것이나, 우리가 사신을 접대하는 도리라도 예물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 하물며 새 얼굴의 사신이 이곳에 당도하였는데, 어찌 노고에 보답하는 조치가 없겠는가? 모름지기 받아가라.(使臣之辭, 雖出於禮也, 然以我待使臣之道, 亦不可無贈禮云. 況使臣新面到此, 豈無酬勞之舉也? 須領去.)” 이 4월 23일자에서 새로운 얼굴의 조선 사신이 왔음을 간파할 수 있는바, 왜 깃듯이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신과 용골대가 만나 날씨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 등 서로의 관심사를 묻는 대목에서 용골대가 “군병은 600여 명이고 장사꾼은 800여 명이며 물품은 단지 6만여 냥어치이다.²¹⁾”고 대답한 것과, 가도의 변경에 대해 묻다가 헤어지는 대목에서 용골대가 “내가 만약 귀국에 도착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²²⁾고 말한 것을 통해, 용골대는 의주의 개시를 위해 조선으로 내려오는 중이고, 조선의 사신은 다른 목적을 위해 심양으로 가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③의 인용문 가운데 “박난영은 1631년에 조선 사절로는 2차로 심양을 다녀왔는데, 胡差 龍骨大는 龍灣의 開市를 요구하거나 椴島를 차지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胡人 수천 명을 데리고 와서 조선을 위협하고 했다. 박난영은 이에 응대할 임무를 맡아 심양으로 파견되었다.”고 한 대목은 오류이고, 밑줄친 부분의 해제와 비슷하게 언급한 다른 해제들도 실상과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너 3월 26일에야 심양의 관소(館所)에 도착한 조선의 사신 일행이 박난영의 춘신사 일행일 수 없음은 3월 27일 일기에서 확인하다. 관소에 머물고 있는 조선의 사신을 찾아온 능시(能時) 등이 “귀하가 가지고 온 예물은 당초와 견주면 해마다 줄어든 것이라서 진실로 탓할 거리도 아니다. 요즘 들어 일마다 점차 종전만 못하였으니, 춘신사(春信使)의 일행이 어찌 그리도 크게 준단 말인가?”²³⁾고 하자, 조선의 사신이 “단지 궁핍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찌 마음이 야박해서 그런 것이겠는가?”²⁴⁾고 대답하는 데서 춘신사 일행과 일정한 거리를 두

21) <심양왕환일기>. “軍兵六百餘名, 商胡八百餘名, 物貨則只六萬餘兩.”

22) <심양왕환일기>. “我若到貴國, 則可知.”

23) <심양왕환일기>. “貴下禮物, 自初比之, 則年年減省, 固不以咎. 近來事事, 漸不如前, 春信使之行, 何太減削耶?”

24) <심양왕환일기>. “只緣貧乏所致, 豈情薄然也?”

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춘신사 일행은 당초의 약조보다 줄어든 예물을 칸에게 전달하려다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이를 채워서 재차 온 조선의 사신이 바로 <심양왕환일기>에 등장하는 사신임은 바로 이어지는 능시와 조선 사신의 문답에서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곧, “말을 꾸며 델 생각은 말라. 지금 비록 수를 더하여 준비했다고는 하겠지만 역시 전례(前例)만 못한 것이니, 우리나라는 예물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종종 푸대접한다는 생각에 유감스러운 것이다. 당초 화의(和議)를 맺고 한 약조(約條)를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²⁵⁾라는 능시의 말에 대해, “대개 이번 귀국의 국서 안에 있는 허다한 얘기들 및 그대들이 이른바 운운할 만하다고 한 말은 모두 전혀 생각하지 않던 뜻밖의 말로서 모름지기 서로 따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하늘에 고하고 화약(和約)을 맺어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였는데, 지난번 예물을 비록 받아 두고 말해도 오히려 볼 낯이 없거늘 돌려보내기에 이르렀으니, 그 부끄러움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었겠는가? 곧바로 예물을 갖추도록 하고 특별히 별도의 사신을 보내어 지난번 잘못을 보상토록 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대체로 그 가운데 있거늘 그대들 또한 어찌 알지 못한단 말인가?”²⁶⁾라고 조선의 사신이 응답한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심양왕환일기>에 등장하는 조선의 사신은 춘신사가 아니라 별사(別使)였던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4월 23일자의 일기에서 보다 분명하다.

25) <심양왕환일기>. “勿以爲飾辭也. 今者, 雖曰‘加數設備’云, 而亦不如前例, 我旺不以禮物爲貴, 只恨種種外待之意也. 當初結盟約條, 固如是乎?”

26) <심양왕환일기>. “大槩今番, 貴國書中, 許多說話, 及爾等所謂云云之說, 皆是萬情外之說, 不須相較. 而兩旺旣爲告天, 結盟約爲兄弟, 則前來禮物, 雖領留而言之, 尙且無顏, 至於還送, 其爲慚愧, 如何可言? 卽令設備禮物, 特遣別使, 以補前失, 我旺信義之情, 盖在其中, 爾等亦豈不知也?”

“이번 나의 행차는 비록 굳이 오지 않아도 될 행차이었지만 오로지 거절된 예단(禮單)을 다시 준비해서 왔으니 또한 춘신사(春信使)의 일개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면 이전에 왔던 사신이 이미 으레 준 선물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이중으로 받겠는가? 게다가 병란 이후로 국가의 재정이 해마다 고갈되어 예물(禮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거절되기에 이르렀으니, 부끄럽고 창피스런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었으랴. 그런데도 또다시 주는 선물을 받으면 더욱더 몹시 부끄러워질 것이니 감히 받을 수가 없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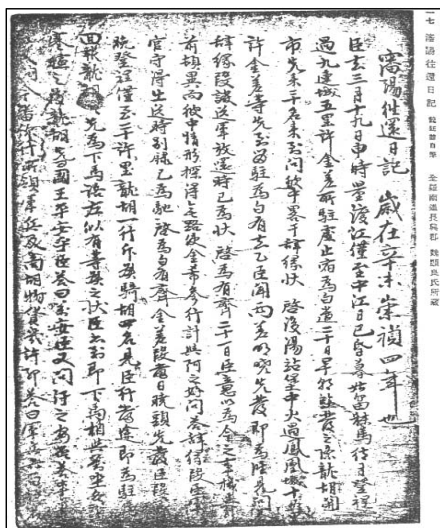
결국, 이상의 비판적 검토로써 <심양왕환일기>에 등장하는 조선의 사신은 역사적 자료이든 일기의 문면이든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춘신사 박난영일 수 없음이 확실해졌다고 하겠다.

3. <심양왕환일기> 저자로서의 위정철

<심양왕환일기>의 저자가 박난영이 아니라면,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에서 1927년 12월 전라남도 장흥군 고읍면(지금의 관산면)을 방문하여 보았던 위순량씨의 소장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위순량씨가 소장했던 <심양왕환일기>의 일부를 찾아내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7) <심양왕환일기>. “今之俺行，雖是剩行，而專爲見郢禮單，更備而來，亦一春信使价也。然則，前來使臣，既受例贈，吾何敢疊受乎？且兵亂以後，國儲逐年罄竭，物不稱情，以致見郢，忸怩之心，可勝言哉？又爲受贈，尤極慚赧，不敢領之。”

1) 저자 입증을 위한 새로운 근거 자료 소개



〈그림 2〉

〈그림 2〉는 논자가 새로 찾아낸 자료인데, 조선사편수회가 1935년에 편찬한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3집의 17번째 사진자료이다.²⁸⁾ 위순량이 소장했던 <심양왕환일기> 실제 모습의 그 첫머리로서, 매행 29자 12행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7번째 제목 <심양왕환일기> 밑에 있는 ‘위정철 자필. 전라남도 장흥군 위순량씨 소장(魏廷喆自筆. 全羅南道長興郡, 魏順良氏所藏.)’이란 협주이다.

위정철과 소장자 위순량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장흥위씨대동보』(1999)를 조사한 결과, 위정철은 장흥위씨 20세 위곤(魏鯤)의 손자²⁹⁾이고, 위순량은 위곤(魏鯤)의 12세손³⁰⁾이니, 두 사람은 10대의 방

28) 『조선사료집진』 1집에서 3집까지 합본되어 상(上)으로 1935년에 간행되었는데, 8개의 기관 또는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본(청구기호: 해사 953.05 1935g 1)을 참고하였다.

조(傍祖)와 방손(傍孫) 사이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위순량이 <심양왕환일기>를 소장했던 연유는 자신의 집안 어른이 기록한 소중한 문헌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문헌은 현재 행방불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조선사편수회는 1935년에 또한 『조선사료집진 해설(朝鮮史料集眞解説)』도 간행하였는데, 그 <일러두기> 가운데 몇 항목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인용한다.

一. 이 집진은 본회가 소장하고 있는 사료 및 사료사진에 대해 조선시대에 관한 것으로 약 150엽의 도판을 골라 뽑아 실음으로써, 현재 본회에서 편찬하여 계속 간행 중인 『조선사』의 도판과 서로 조응하여 이를 읽는 데에 편리하고, 또 일반인이 참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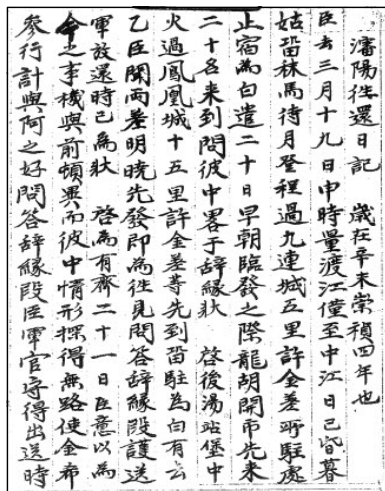
一. 이 집진에 수록된 것은 본회가 창립된 이래 12년간 일본과 조선의 각 지방 및 만주에서 사료를 채집하고 방문하여 조사한 것인데, 이름난 가문의 진귀한 글, 관공서와 개인이 수집한 사료의 사진을 주로 하였고, 또 대정(大正, 다이쇼) 15년(1926) 본회가 소장하게 된 구대마도 번주(藩主, 영주) 소 백궤(宗伯爵) 집에서 대대로 전해온 조선 관계 문헌을 더하고, 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 관리된 구규장각 도서관의 사진 몇몇 장도 보탬다.³²⁾

29) 鯤→4자 德和→廷喆.

30) 鯤→2자 德毅→廷獻→2자 東葵→2자 翊中→命三→2자 相慶→道衡→榮吉→亨祚→2자 錫泰→啓義→2자 順良.

31) “一. 本集眞ハ、本會所藏ノ史料及ヒ史料寫眞ニ就キテ、朝鮮時代ニ關スルモノ、凡ソ百五十葉ノ圖版ヲ選擇收載シ、以テ現ニ本會ニ於テ編修續刊中ノ『朝鮮史』圖版ト相照應シテ、之ガ閱讀ニ便シ、且ツ一般ノ參考ニ資セントスルモノナリ.” 『조선사』는 1922년 12월에 설치된 朝鮮史編修會가 1894년까지의 한국사를 6편으로 나누어 1932년부터 1938년까지 단계적으로 출간한 총 35권의 편년체 사료집이다.

32) “一. 本集眞收ムル所ハ、本會創立以來十二年間、內鮮各地及ヒ滿洲ニ互リ、史料



〈그림 3〉

一. 이 집진에서 도판의 종류는 기록·고문서·사적을 주로 하여 필적·초상화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유래가 확실한 것을 모았으니, 널리 조선 사료의 일반 개념을 획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³³⁾

一. 이 집진에서 도판의 해설은 되도록 상세하게 하였는데, 먼저 예로서 원문을 활자로 옮기고 구두를 붙임으로써 열람하는 데에 편하게 하였고, 각 사료의 배경을 밝혀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하였으니, 즉 일반사

의 대세를 파악하는 데에 편하고 좋기를 기대한다. 단, 체제·기호 등은 모두 편의에 따른다.³⁴⁾

위에 인용한 일러두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선사료집진 해설』은 조선 사편수회가 1922년부터 일본과 조선의 각 지방 및 만주에서 사료를 채집하고 방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이름난 가문의 진귀한 글, 관공서와 개인이

採訪ニヨリテ調査セル, 名家ノ寶藏, 公私ノ蒐集ニ係ル史料ノ寫眞ヲ主トシ, 又タ大正十五年本會ノ所藏ニ歸シタル舊對州藩主宗伯爵家世傳ノ朝鮮關係文獻ヲ加ヘ, 且ツ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所管舊奎章閣圖書ノ寫眞若干ヲモ添ヘタリ.”

33) “一. 本集眞圖版ノ種類ハ, 記錄・古文書・史籍ヲ主トシ, 筆蹟・畫像ノ類ニ及ビ, 總テ由緒確實ナルモノヲ採リ, 廣ク朝鮮史料ノ一般概念ヲ得シメンコトヲ期シタリ.”

34) “一. 本集眞圖版ノ解説ハ力メテ詳細ニシ, 先ツ例トシテ原文ヲ活字ニ附シ, 句讀ヲ施シテ閱覽ニ便シ, 各史料ノ背景ヲ明カニシ, 其ノ歷史的意義ヲ知會シ, 以テ一般史ノ大勢ヲ把握スル便宜トモ爲ラシメンコトヲ期シタリ. 但シ體裁・記號等ハ, 凡テ便宜ニ從ヘリ.”

수집한 사료 등 유래가 확실한 것들의 사진을 주로 하였지만 『조선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먼저 예로서 원문을 활자로 옮기면서 구두를 붙였고 각 사료의 배경을 밝혀 그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사편수회가 <일러두기>처럼 1927년 12월 방문하여 위순량의 소장 <심양왕환일기>를 사진 찍은 것이 <그림 2>이고, 그 소장본을 베껴 옮긴 등초본이 <그림 3>이다. 비록 첫머리에 불과할망정 이 둘을 서로 비교해보면 내용과 글자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위순량의 소장본은 <그림 2>처럼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고 그 전모를 알 수 없으나 저자를 알 수 있는 반면, 등초본은 훼손됨이 없이 전질로 남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나 저자를 알 수 없다. 이렇듯 한 장의 사진과 한 권의 등초본은 상보적인 관계를 지녀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다만, 위순량의 소장본은 매행 29자 12행인데 반해, 등초본은 매행 20자 10행으로 38장본이어서 장수(張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조선사료집진 해설(朝鮮史料集眞解說)』에서 <그림 2>의 <심양왕환일기>에 대해 해설한 것을 인용하는데, 예로서 원문을 활자로 옮긴 것은 제외하였다.

본도(本圖)는 위정철(魏廷詰)이 직접 쓴 <심양왕환일기>의 첫머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위정철은 장흥 사람으로 무과 출신인데, 당시에는 평안도 만포첨사였고 인조 12년에는 영흥 부사, 함경남도 방어사 등에 임명되었다. 일기는 신미 승정 4년 즉 인조 9년(관영 8년, 서력1631년), 회답사로서 금(후에 청나라가 됨)의 수도 심양(봉천)으로 향해 갔을 때 연변(沿邊)의 동정을 적었는데, 3월 19일 압록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4월30일 의주에 돌아

오는 것으로 끝난다. 인조는 정묘호란 후의 약정에 따라 그 해(1631) 2월 연례의 춘신사 박난영을 심양으로 보냈지만, 예물이 정한 액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헛되이 귀국하였고, 또 금나라는 이를 힐책하기 위하여 아주 호(아지호)·동남밀(박중남) 등을 보내왔다. 즉 사태가 심각해졌으므로 이것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그 나라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위정철은 회답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정묘·병자 양란 사이에 금나라와 조선의 교섭에 관한 중요사료이다. 특히 기사가 상세하며 금나라의 국정뿐만 아니라 그 명나라 및 몽골과의 관계에 관한 기미를 파악하고, 당시의 중요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 적지 않다. 또 본서의 말미에는 금나라 칸(汗)의 특색 있는 족계 등을 덧붙여 기록하였다. 때마침 금나라 사신 용골대가 또 와서 용만(의주) 개시를 요구하던 때여서, 본도에 용호라 보이는 것은 이를 가리킨 것이다.³⁵⁾

이는 위순량의 소장 <심양왕환일기> 진본을 처음으로 찍어서 사진자료를 남긴 조선사편수회가 해설한 것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위정철을

35) 조선사편수회 편, 『조선사료집진해설』 권3, 조선총독부, 1935, 28쪽. “本圖ハ、魏廷詰ノ自筆ニ係ル瀋陽往還日記ノ卷首ヲ示セルモノナリ。廷詰ハ長興ノ人、武科ノ出身、當時平安道滿浦僉使ニシテ、仁祖十二年ニハ永興府使・咸鏡南道防禦使等ニ任セラレタリ。日記ハ、辛未崇禎四年即チ仁祖九年(寬永八年、西曆一六三一年)、回答使トシテ金(後ノ清)ノ首都瀋陽(奉天)ニ赴ケル時ノ沿途ノ動靜ヲ記シ、三月十九日、鴨綠江ヲ渡ルニ始マリ、四月三十日義州ニ還レル事ニ終ル。仁祖ハ、丁卯亂後ノ約定ニ基キ、此ノ年二月、年例ノ春信使朴蘭英ヲ瀋陽ニ遣セシガ、禮物定額ニ滿タザル故ヲ以テ、空シク歸國シ、且ツ金ハ之ヲ詰責スル爲メ、阿朱戶(阿之好)・董納密(朴仲男)等ヲ遣シ來レリ。乃チ事態重大ナルニヨリ、之ガ對策ヲ講ジ且ツ彼ノ國情ヲ探ランガ爲メ、魏廷詰ハ回答使ノ名ヲ以テ遣サレタルナリ。故ニ本書ハ、丁卯・丙子兩役間ニ於ケル金ト朝鮮トノ交渉ニ關スル重要史料タリ。殊ニ記事詳細ニシテ、金國ノ國情ノミナラズ、其ノ明及ビ蒙古トノ關係ノ機微ヲ捉ヘ、當時ノ重要事實ノ闡明セラルルモノ尠カラズ。又タ本書ノ末尾ニハ、金國汗ノ特色アル族系等ヲ附録セリ。時ニ金使龍骨大亦タ來リ、龍灣(義州)開市ノ事ヲ求メツツアリシ際ニシテ、本圖ニ龍胡ト見ユルハ之ヲ指スモノナリ。”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로 보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 자료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위정철은 논란의 여지없이 <심양왕환일기>의 저자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다.

2) 저자로서의 위정철에 대한 입증

그간 <심양왕환일기>가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쓰인 사행일기’인 것에 주목하여 엉뚱하게도 박난영을 저자로서 잘못 지목하였지만, 위정철을 저자로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근거의 자료가 발굴되었으니 이제 그의 회답사로서 행적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1631년에 있어서 위정철은 대신들의 반대³⁶⁾에도 불구하고 회답사(回答使)로서 심양에 보내져 갔다가 5월 7일 치계를 올린 후 5월 15일에 들어왔는데³⁷⁾, 후금의 칸(汗)의 답서를 검토하지 못하고 곧장 나와 버렸다 하여³⁸⁾ 6월 4일 감옥에 갇혔지만³⁹⁾ 6월 10일 석방되었던 것⁴⁰⁾으로 확인

36) 趙慶男, 《續雜錄》 권3, 신미년 하, 1631년 6월 14일. “지금 만일 계속하여 양식을 주고 別使를 파견한다면 속으로는 비록 철회할 뜻이 있으나 겉으로는 오래 머무를 기색을 보여 반드시 더한층 따르기 어려운 요구를 끌어내서 그들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신을 보내는 일이 어찌 다만 무익함에만 그 치겠습니까. 지난날 위정철이 갈 때에도 신이 힘껏 그것이 불가함을 진언하였습니까. (今若繼給糧餉, 差遣別使, 則內雖有撤回之意, 外示以久留之色, 必發加一層難從之請, 以濟其無厭之慾. 然則遣使之舉, 豈但無益而止哉? 前日魏廷詰之行, 臣力陳其不可.)” 이 글은 호조판서 金起宗이 올린 상소문에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別使를 보내는 것에 반대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번역은 『국역 대동야승』 VIII(민족문화추진회, 1973)의 335쪽을 참고한 것이다.

37) 《승정원일기》, 5월 15일. “회답사 위정철이 들어왔다.(回答使魏廷詰, 入來.)”

38) 朴鼎賢, 《凝川日錄》 5, 1631년 6월 4일. “비변사의 계사 때문에, 회답사 위정철을 잡아 가두라는 것으로, 전지를 받았는데, 금 나라 칸(汗)의 답서를 검토하지 못하고 곧장 나와 버렸기 때문이었다.(以備邊司啓辭, 回答使魏廷詰拿囚事, 捧承傳, 以不爲討得金汗答書, 徑自出來也.)” 번역은 『국역 대동야승』 12 (민족문화추진회, 1973)의 306쪽을 참고한 것이다.

된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행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윤봉구(尹鳳九, 1681~1768)가 지은 위정철의 묘갈(墓碣)⁴¹⁾에도 보이고, 장흥위씨 가승(家乘)자료⁴²⁾에도 전해오고 있다. 위정철이 회답사로서 심양을 다녀온 뒤에 올린 치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금나라 칸(汗)이 말하기를 ‘보내온 예물이 해마다 이같이 삭감되니 이

39) 《승정원일기》, 6월 4일. “비변사의 계사와 관련하여 회답하기를, ‘위정철을 나수하는 일에 대해 승전을 받들라.’ 하였다.(以備邊司啓辭回答, 魏廷詰拿囚事, 捧承傳.)” 같은 날에 또 “의금부가 위정철을 나수했다고 아뢰었다.(禁府, 魏廷詰拿囚. 啓.)”는 기록이 있다.

40) 《승정원일기》, 6월 10일. “금부가 올린, 위정철의 원정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 않으니 형추하지 말고 파직하여 풀어 주라.’고 판부하였고, 이신의 원정에 대하여 ‘우선 형추를 정지하고 사핵하여 처치하라.’고 판부하였고, 임무생을 형추하겠다는 계사에 대하여,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禁府, 魏廷詰元情. 判付, 不無可恕之道, 除刑推, 罷職放送. 李莘元情. 判付, 姑停刑推, 查覈處置. 林茂生刑推. 依允.)”

41) 『長興魏氏大同譜(誌狀錄)』 1999, 118쪽. “통신사 박난영이 심양에서 돌아왔는데, 오랑캐가 예물을 물리쳐 보내고 대동한 군관을 가두었다. 게다가 차사(差使)가 뒤따라와서 으르고 협박하니, 조정이 이를 특별히 우려하고 공에게 임시로 병조참판이란 이름을 붙여 회답별사를 삼았다. 공이 왕명을 받들어 심양에 들어가면서 연로의 실정이나 형편 등을 취재하여 듣는 대로 장계를 올렸고, 단자와 예물들을 들여보내는 데에도 끝내 저지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칸(汗)은 품목의 종류들이 삭감된 것을 화친 맺은 뜻이 점차 대만해지는 것이라 하고, 또 명나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도와준 것을 지난날의 약조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 하여 힐책하는 말로 핍박하였고, 제주(諸酋)들은 전마(戰馬)를 추환하거나 도망자들을 쇠환하는 등 여러 일에 대해 번갈아가며 칸의 뜻을 전하느라 온갖 공갈을 다했지만, 공은 사리를 분명히 밝히는 데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경륜을 펼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信使朴蘭英, 回自潘陽, 虜却禮物, 拘所帶軍官. 而差來恐嚇, 朝廷特憂之, 以公借卿兵曹參判, 爲回答別使. 公承命入潘, 採訪沿路物情, 隨聞修啓, 及至送單諸物, 卒無阻遏. 而汗以般目減削, 謂和意之漸怠, 又以漢人助糧, 謂前約之不遵, 嘖言相迫, 諸酋以推馬刷逃數事, 迭傳汗意, 咆喝多端, 公辭理明下, 不損不屈, 隨機彌綸, 竣事而歸.)” 해당자료에서 원문만 인용하였다.

42) 위정철, 『防禦使公』, 『長興魏氏要覽』, 장흥위씨대종회, 2005, 124~125쪽.

뒤로는 귀국은 사신을 보내지 말라. 우리도 다시 사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또 ‘유홍치가 우리에게 투항하려다가 귀국이 식량을 주어 살 수 있게 함으로 인하여 투항하지 않았다. 귀국의 처사는 어찌 이와 같은가. 만약 다시 도중에 식량을 주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의주에 나가 공급로를 끊을 것이니, 귀국에 피해가 없겠는가.’ 하였습니다.”⁴³⁾

위정철이 이처럼 치계(馳啓)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심양왕환일기>의 4월 23일자에 그대로 있으니, 장황할지라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능시(能時) 등이 또 칸(汗)의 뜻이라며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에 예물을 되돌려 보낸 것은 예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라기보다 단지 귀국이 점점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이었다. 이번에 비록 갈아내고 다시 마련하여 보내왔다 하나, 예컨대 값비싼 예물을 줄여서 값싼 예물로 메꾸었으니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화친을 맺은 도리가 손상될까 염려했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본디 원수가 된 적이 없었으나, 무오년(1618)에 남조(南朝: 명나라)가 우리의 경계를 침범하는데 지원군을 보낸 데다, 우리가 요동(遼東)을 토벌해 차지하여 요동의 백성들이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귀국이 남조 사람들에게 청하여 도중(島中: 靉島)에 머물러 있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유인하게 한 것이 많았으니, 또한 한스럽지 아니하겠는가? 이것을 하늘에 고하였더니, 정묘년(1627)에 군대를 귀국으로 출동시켰을 때 하늘의 도움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다. 그때에 경성(京城)으로 곧장 쳐들어가고 팔도(八道)를 소탕하자 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지만, 귀국이 사죄하고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하늘에

43) 《인조실록》 1631년 5월 7일조 6번째 기사. “回答使魏廷喆馳啓曰: ‘金汗言: 『所送禮物, 年減削如此, 今後, 貴國不須送使. 我亦不復遣使矣.』 且言: 『劉興治將投于我, 緣貴國給餉, 得以資活, 不果來投. 貴國之事, 何乃如此? 若復有島中給餉之事, 則我當出據義州, 以絕其路, 其能無害於貴國乎?』 云.”

고하고 맹약을 맺은 뒤로 철군하였다. 원창군(原昌君)이 예단을 가지고 들어오자, 우리들끼리 서로 축하하며 말하기를, ‘이는 좋은 일이 아니냐? 만일 곧장 경성으로 쳐들어갔다면 필시 후회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었다. 그 후로 신씨(申氏 : 신경호) 성을 가진 사람과 문관사신(文官使臣)이 되돌아간 뒤에는 보내오는 예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것이 어찌 정리(情理)란 말인가?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신씨 성을 가진 사람과 그때의 사신처럼 예단을 보내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고 나도 역시 사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사신은 날날이 전달하여 귀국이 소홀하지 않게 하라, 소홀하지 않게 하라. 이후로 예단을 만일 뜻대로 하지 못하면 사신이 반드시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람을 보내어 사신을 데리고 귀국에 증거를 대며 사실 여부를 물으면, 사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죄는 끝내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 (중략) … “맹약을 맺었을 때에 의주(義州)를 빌려서 주둔하였던 우리 군사들은 도중(島中)과 귀국이 서로 드나들며 양식을 마련할 계책 세우는 것을 금하였다. 귀국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 땅을 빼앗은 것이 그러한 터에 도중(島中)의 한인(漢人)들에게 양식을 도와줄 리가 만무하다.’고 운운하여, 그 말을 믿고서 그저 조약만을 맺고 철군하였다. 그 후로 ‘도중의 사람들은 귀국이 양식을 도와주는 것에 힘입어 보전되었다.’고 운운하는 것을 듣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사신이 왕래하며 물으니, ‘매번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하여 반신반의하였는데, 지난해 유흥치(劉興治)가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남조(南朝 : 명나라)가 군량을 보내지 않아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만약 군량이 바닥 나면 마땅히 투항해 들어가겠다.’고 운운하여 손꼽아 기다렸다. 뜻밖에도 도중(島中)에 변란이 생겨 투항한 진달(眞撻) 200여 명이 이곳에 도착하여 말하는 가운데, ‘조선이 만약 양식으로 구제하지 않았다면, 유흥치는 일찌감치 투항해 왔을 것이다. 조선이 양식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연되었고 변란이 생기기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불만스럽게도 우리에게 패한 일 및 귀국의 일에 대해서 어찌 이와 같이 실제와 각기 다르게 말한단 말인가? 그러나 지나간 일일뿐이니 버려두고 논하지 않겠지, 이제부터는 하나같이

당초의 약조(約條)에 의거하여 시행하겠는데, 은자와 인삼으로써 물품을 사고팔거나, 남조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한 뒷박의 쌀이라도 서로 도와주었다는 말이 있어 우리가 마땅히 군사를 출동시켜 의주를 차지하고서 막는 데에 이르러서는 귀국이 우리를 남조인(南朝人)과 똑같이 대우하여 으레 배신(陪臣)을 정해야 한다. 양식을 운반하여 구제하려는 찰나에 우리들이 명나라 사람[漢人]들과 서로 싸우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내버려둘 것인가? 반드시 해(害)가 귀국에 미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뜻을 낱낱이 귀국에 전달하라.”⁴⁴⁾

위정철이 회답사로서 심양에 당도하여 제반 교섭을 벌였지만 위의 내

44) <심양왕환일기>. 能時等, 又以汗意, 傳言曰: “前者, 禮物之還送, 不以物爲貴, 只恨貴國漸漸怠忽之意也。今者, 雖曰‘改備送來’, 而比如則削高填低, 六不稱情, 又欲不受, 而恐傷和道, 故領之耳。我國與貴國, 本無讐怨, 而戊午年, 助兵於南朝犯我境界, 且我討討得遼東, 則遼東之民, 皆是我人, 而貴國請南朝之人, 接置於島中, 使之誘引我人者多, 不亦恨乎? 以此告天, 丁卯年出兵貴國之日, 我蒙天祐得勝。其時, 或有直到京城, 掃蕩八方之論, 而貴國謝罪請和, 故告天決盟, 後退兵矣。原君若持禮單入來, 則我等自中, 相賀曰: ‘此非好事耶? 若直犯京城, 則必不無後悔也。’厥後, 申姓與文官使臣, 回還之後, 則所送禮物, 漸漸減削, 此豈情耶? 今後, 則一如申姓使臣, 禮單送之, 而若不然, 則不須送使, 我亦不送使价, 此意使臣, 一一傳達, 貴國無怠忽! 此後禮單, 若不如意, 則使臣必傳達之故也, 我國送人, 將使臣, 憑問貴國, 則使臣不傳之罪, 終難免焉。”云. … (중략) … “決盟之初, 借得義州一邑, 留駐我兵, 禁島中與貴國, 相爲出入資糧之計者矣。貴國曰: ‘然則, 奪我地方者然, 島中漢人, 則萬無助糧之理。’云云, 信其言, 只成約條而退兵矣。厥後, 因聞‘島中之人, 賴貴國之助糧, 保全。’云云, 使价之往來問之, 則每以不給爲言, 將信將疑, 而上年劉興治, 送人於我國, 曰: ‘南朝不送糧餉, 勢難保全, 若糧盡, 則當投入。’云云, 指日待之矣。不意島中生變, 投鎗二百餘名, 到此言內‘朝鮮, 若不救糧, 則劉興治, 曾以投入矣。以朝鮮救糧之故, 遷延至此, 以致生變。’云, 而不滿, 敗於我事・貴國之事, 何如是言實各異耶? 然往事已矣, 棄而不論, 今後則一依當初約條施行, 而以銀麥, 貨(和)賣物貨, 與南朝送使之事, 吾不禁止。若有一斗米, 相資之說, 我當出兵, 雄據義州, 則貴國待我人, 一如南朝人, 例定配(陪)臣。運糧接濟之際, 我人與漢人相戰, 則何取何捨耶? 必不無害及於貴國之事矣。此意一一傳達貴國。”

용만을 치계하였던 이유는 <심양왕환일기>의 4월 30일자에 나온다.

대체로 오랑캐의 성질이 성나면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나면 사리(私利)를 꾀하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습속인지라 의리로써 감화시킬 수가 없었거니와, 이번에는 또 한층 심했는데 그 중에서 전마(戰馬)의 추환(推還,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과 북도(北道)의 쇄환(刷還)과 같은 일들을 저들이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못되지만 도중(島中 : 楸島)에 양식을 도와준 것, 예단(禮單)을 더 보내라는 것, 강숙(姜瑯)을 들여보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그 의도를 자못 헤아리건대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⁴⁵⁾

이로써 위정철 스스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여겼던 내용이 치계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정철이 <심양왕환일기>의 저자임은 역사적 자료이든 일기의 문면이든 그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확인된다 하겠다.

3) 위정철(魏廷詰)은 누구인가

위정철은 1583년(선조 16)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관산읍(冠山邑) 방촌리(傍村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자길(子吉), 호는 만회재(晩悔齋)이다. 아버지는 위덕화(魏德和, 1551~1598)이고 어머니는 죽산안씨(竹山安氏 : 安克仁의 딸)이다. 조부는 위곤(魏鯤, 1515~1582), 증조부는 위진현(魏晉賢, 1483~1564)이다.

1603년 21세 때 무과에 급제하고 1610년 추천되어 선전관(宣傳官)이

45) <심양왕환일기>. “大槩夷狄之性，忿而喜爭，貪而嗜利，從古習俗，不可以義理感化是白在果，今者又加一節，而其中戰馬推還與北道刷還中等事，彼雖言之，不足慮也，而至於島中助糧及禮單加送與夫姜瑯入送之說，其意頗測，誠非細慮是白乎旂.”

되었으며, 그 뒤로 함평 현감(咸平縣監)을 거쳐 곤양⁴⁶⁾ 군수(昆陽郡守)가 되었지만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해임되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진하여 변방 부임을 청하였는데 1629년 영유(永柔)⁴⁷⁾의 수령으로서 제언(堤堰)을 축조하고 농사에 부지런히 힘써 전야(田野)가 날로 개간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631년 춘신사 박난영이 심양에서 돌아왔는데, 오랑캐가 예물을 물리쳐 보낸 데다 대동한 군관을 가두고 말았으며, 게다가 차사(差使)가 뒤따라와서 으르고 협박하니, 임시로 병조참판이란 이름이 붙여진 회답별사가 되어 심양을 다녀왔다. 심양에 들어가면서 연로의 실정이나 형편 등을 취재하여 듣는 대로 장계를 올렸고, 단자와 예물들을 들여보내는 데에도 끝내 저지당하지 않았는데, 온갖 힐책과 공갈 속에서도 사리를 분명히 밝히는 데에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따라 경륜을 펼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때 사행일기를 적었으니, 바로 <심양왕환일기>이다.

1635년에는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사직(折衝將軍行龍驤衛副司直)에 제수되었고, 1636년 봄에 영흥⁴⁸⁾ 부사(永興府使)가 되어 재직 중 뇌물을 받아 파직되었지만, 곧 다시 숙천⁴⁹⁾ 부사(肅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1638년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재차 파직되었다. 1642년 갑산⁵⁰⁾ 부사(甲山府使)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양하였고, 1643년 다시 만포⁵¹⁾ 첨사(滿浦僉使)에 올라서는 청나라 칙사와 관련된 외교문제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렀

46) 곤양(昆陽): 경상남도 사천 지역의 옛 지명.

47) 영유(永柔): 평안남도 평원 지역의 옛 지명.

48) 영흥(永興): 함경남도 남부에 있는 군.

49) 숙천(肅川): 평안남도 평원 지역의 옛 지명.

50) 갑산(甲山): 함경남도 북동쪽에 있는 군.

51) 만포(滿浦): 평안북도 江界都護府에 있던 압록강 가의 마을 이름.

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다가 1657년 (효종 8) 75세의 생애를 마감하였다.⁵²⁾

요컨대, 위정철은 평안 남북도와 함경남도의 변방 일대를 지킨 전형적 무신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위덕화도 1585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으로서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를 호종한 공신이었던 집안 내력을 이은 것이라 하겠다. 관직생활에서야 부침을 겪었지만, 1631년 회답사로서 당시 마찰이 있었던 외교적 문제에 대한 교섭 양상 및 후금의 정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심양왕환일기>라는 귀중한 사료를 남긴 인물이다.

4. 나가며

<심양왕환일기>는 위정철이 1631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회답사로서 심양에 가서 후금의 인물들과 여러 문제를 놓고 교섭한 내용 및 취득한 첩보 등을 적은 일기인데, 예단 전달하는 일, 국서의 회답 받아오는 일, 개시(開市)에 관한 일, 포로 쇄환과 전마(戰馬) 추환(追還)에 관한 일, 가도의 명군에게 식량 지원 중단의 일, 군관 남기는 일, 강홍립의 아들 강숙 들여보내는 일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당시 청태종의 족계(族系)가 적혀 있어, 당시 외교적 교섭에 관한 중요한 문헌이라 할 것이다.

이 <심양왕환일기>에 대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양란 사이에 금나라와 조선의 교섭에 관한 중요사료이다. 특히 기사가 상세하며 금나라의 국정뿐만 아니라 그 명나라 및 몽골과의 관계에 관한 기미를 파악하고, 당

52) 위정철이 문집을 남기지 않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尹鳳九가 지은 <묘갈명> 등을 참고하여 서술되었음.

시의 중요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 적지 않다.’고 한 『조선사료집진 해설』의 평가는 정곡을 짚은 것이라 하겠다.

이런 중요한 문헌의 박난영 저자설은 일기 자료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턱 없이 부족했더라도, 빈약한 근거를 통해 1631년 춘신사 박난영으로 잘못 추정되었음은 조금만 유념했어도 쉬 간취해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저자설이 그간 그대로 용인하여 왔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가 제대로 판명되지 않으면, 일기의 전체적인 맥락 파악과 감상 그리고 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각종 문헌자료에 나타난 1631년 춘신사로서 박난영, 선유사로서 박난영 등의 행적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박난영의 저자설이 잘못된 추정이었음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또 조선사편수회가 1935년에 편찬한 『조선사료집진』 및 『조선사료집진 해설』의 자료에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입증의 단서를 마련하고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위정철이 저자임을 입증하였다. 이제, <심양왕환일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瀋陽往還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인조실록》. 《승정원일기》.
朴鼎賢, 《凝川日錄》 권5.
趙慶男, 《續雜錄》 권3.
고구려연구재단 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02)』, 2004, 109~133쪽.
김문식, 「심양왕환일기 해제」,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02)』, 고구려연구재단, 2004, 9~10쪽.
신해진 역주, 선약해 저, 『심양사행일기』, 보고사, 2013.
위정철, 「防禦使公」, 『장흥위씨요람』, 장흥위씨대중회, 2005, 124~125쪽.
이지양, 「심양왕환일기 해제」, 『(국학고전) 연행록해제』 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
과, 2005, 168~169쪽.
임기중 편, 『연행록속집』 106, 상서원, 2008, 328~405쪽.
장흥위씨대중회, 『장흥위씨대동보(誌狀錄)』, 하산사강당, 1999.
조선사편수회, 『朝鮮史料集眞』 3, 조선총독부, 1935.
_____, 『朝鮮史料集眞解説』 3, 조선총독부, 1935.
황재문, 「어학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ABSTRACT

Historical Research on the Author of
<Shimyangwangwhan Ilgi(瀋陽往還日記)>

Shin, Hae-jin*

〈Simyangwanghwan Ilgi (瀋陽往還日記, Diary on Travel to and from Shenyang)〉 is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on diplomatic negotiations between Later Jin Dynasty(後金) and Joseon Dynasty(朝鮮) during the Jeongmyohoran(丁卯胡亂) and Byeongjahoran(丙子胡亂). It was an envoy's diary which was written in the form of a report to the king nearly every day from March 19 to April 30, 1631. It details not only the Later Jin's political situations but also movements about its relations with Ming(明) and Mongolia(蒙古). This diary is the transcript which was copied from the copy possessed by Wi Sun Ryang(魏順良) in 1927.

The author of this literature was presumed to be Park Nan-yeong(朴蘭英), a Chunsinsa(春信使) envoy appointed in 1631, based on poor grounds without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diary. Regarding this presumption, this study examined literature on Park Nan-yeong as a Chunsinsa envoy, and on Park Nan-yeong as a Seonyusa(宣諭使) envoy, proving that such presumption was wrong. Also, 『Collection of Joseon Historical Records(朝鮮史料集眞)』 and 『Interpretation of Collection of Joseon Historical Records(朝鮮史料集眞解說)』, compiled in 1935 by Joseon History Compilation Association(朝鮮史編修會) were explored, and other literatures were also examined, proving that Wi Jeong Cheol(魏廷詰) is the author of the diary. His brief biography was also mentioned. Wi Jeong Cheol was a tenth-generation descendant of Wi Sun Ryang.

Key Words <Shimyangwangwhan Ilgi(瀋陽往還日記)>, Park Nan-yeong(朴蘭英),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i Jeong Cheol(魏廷詰), Wi Sun Ryang(魏順良), 『Collection of Joseon Historical Records(朝鮮史料集眞)』

논문투고일 : 2014. 3. 28

심사완료일 : 2014. 5. 28

게재확정일 : 2014. 6. 2